

## ‘보시기에 좋았더라’



▲ 지난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실천. 헌혈 참여, 텀블러 사용하기, 안 쓰는 전기 코드 빼기(왼쪽부터).

###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재의수요일(2월 22일)부터 부활주일(4월 9일)까지  
말씀 묵상하고, 창조질서 회복 위한 작은 실천**

2023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는 뜻깊은 캠페인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오는 2월 2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9일(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는 ‘미사용 공간 소등하기’, ‘컴퓨터(메일) 데이터 정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일터에서 내 컵 만들기’, ‘이면지 활용하기’, ‘종이영수증 대신 온라인 명세서 받기’, ‘잔반 남기지 않기’, ‘헌혈하기’,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주제로 교회에서 제안하는 실천 사항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면 된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는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을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 다.

이호진 자매(강서공동체)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이어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면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민균 다락방장(서브릿지공동체)은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하면 할수록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모두 함께 생명과 환경, 개인의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관련기사 5면>.

/ 김명선 기자 k4458@onnuri.org

## Pray For Turkiye, Syria!

**온누리교회 2월 비전헌금으로 지진 피해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 생필품 및 의약품 지원**

온누리교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Turkiye)와 시리아(Syria)를 돕는다. 2월 11일(토)과 12일(일) 봉헌하는 2월 비전헌금으로 지진 피해 긴급구호를 지원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현지 선교사들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송금해서 긴급구호와 생필품 및 의약품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본부장 김홍주 목사)에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관련 소식을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조속한 구조 활동이 이어지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당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진 발생 지역이 반군의 활동지역이라 NGO 단체들의 활동마저 여의치 않다고 한다.

튀르키예 이종관 선교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모두가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다”면서 “두 국가 국민들이 재난과 슬픔을 하루 빨리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전헌금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사)더멋진세상 우리은행 1005-902-984765

/ 김명선 기자

## 장로중보기도회 2월 24일 개강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한동홀**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막 9:29).

장로중보기도회(담당 신기섭 목사, 조항진 장로, 팀장 김종진 장로, 총무 정병균 장로)가 2월 24일(금) 개강한다.

장로중보기도회는 온누리교회 소속 장로(사역, 시무, 협동, 명예장로)들이 모여 나라와 교회, 가정과 다음세대를 위해 전심으로 중보기

도하는 모임이다. 오는 2월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조항진 장로(한강공동체)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그 대로 이루심을 믿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02-3215-3377’ 전도콜센터 전용전화 개통

전도콜센터(전도사역본부) 전용전화를 개통했다. 전도콜센터 전용전화 번호는 02-3215-3377이다. 긴급 전도 문의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도콜센터 전용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전도콜센터 사역자들이 대신 전도해주고, 기도도 해준다. 문의: 02-3215-3377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전체 맥락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실천에 관한 교훈입니다. 전체 주제 말씀은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롬 12:1).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3장 전반부까지 말씀에 나오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국가 일원으로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영적 예배로 드러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복음적인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담당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옷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지구상 그 어떤 존재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까? 어떤 동물이 제작된 옷을 입습니까? 모든 생물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인간만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옷 아닙니까?

성경이 타락한 인간과 회복된 인간을 옷과 관련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제작한 것이 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이 필요했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옷을 집어 던지고 나체주의로 살면 죄를 극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로마서 13:8~14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그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신 것은 영구적으로 좋은 옷을 입히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죽이 생기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내 앞에 합당하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이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으면 빨갭게 물들지 어떻게 흰색이 되느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상태를 ‘흰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옷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옷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어린 양의 보혈이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의 옷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들이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왕이 초대한 결혼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초대한 결혼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왕이 결혼잔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결혼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다는 비유입니다. 왜 왕은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아냈습니까? 이 비유는 당시 왕이 초대한 잔치에는 합당한 예복을 입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대를 받았을지라도 왕이 여는 잔치에서는 반드시 왕국이 정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옷을 벗고 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고 할 때 “내가 왜 옷을 벗어야 합니까? 나는 결코 벗을 수 없습니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국

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초정한 모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옷을 입어야 한다면 그 옷을 입는 게 일종의 기쁨이요 축하입니다. 그것이 예입니다. 왕이 초대한 사람 중에 옷을 갈아입는 것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반항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욕을 추구함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축복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 “사랑의 빛진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면서 새롭게 벗어지면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납니다. 첫째, 사랑의 빛진 자로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8절).

사랑을 갚아야 할 ‘빛’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서로 빛을 갚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랑은 갚아야 할 빛이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결코 끝나는 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사랑할 만큼 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이상 사랑할 의무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빛진 사람 같습니다. 주고 또 주고도 못 줘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무감이 아니라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빛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빛진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아무리 갚아도 갚을

##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빛진 자로 살아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과 거룩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세상에서 가장 비쌉니다. 죄가 고귀하고 가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대가가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기 죄가 가장 비쌉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켜줍니다. 죄를 범했다면 형벌을 내리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할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죽을 의무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빛진 마음입니다. 그 빛진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빛을 켜주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배신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빛을 지셨기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까지 사랑하십니까? 빛진 마음입니다. 참된 사랑은 빛진 마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주고 또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강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늘 사랑의 빛진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녀, 가까운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 믿는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용서에 대한 마음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힘듭니다. 용서해야 하는 사랑의 빛진 마음이 원수 앞에서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진 마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8b, 10b).

왜 사랑의 빛진 자가 되어 살아갈 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만이 그것을 채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돼 있습니다”(9절).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왜 해야 하고,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도둑질하지 말고, 왜 탐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거짓을 증거할 리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할 리가 없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율법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결코 어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사랑의 빛진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삽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삽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11절).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시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낮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함이 어둠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것은 밝은 빛이 임할 때가 올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짓을 볼 꺼놓고 하고, 어둠 속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많은 은밀한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계속하도록 잠들게 만든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는데, 그 배 속에서 요나는 잠자고 있었습시다. 그 잠은 정말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할 때 드는 잠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의 위협, 지진의 발생 등 여러 종말의 징조로 풍랑을 일으키셔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잠자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이 잠자게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시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12-14절).

그냥 옷이 아닙니다. 갑옷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전투복입니다.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전투에 출정할 때처럼 무기를 챙기고,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잠옷 입고 나가 싸우는 군사는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시대 엄청난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만 보는 것이요, 듣기 원하시는 것만 듣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하기 원하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생각하기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시다. 예수님은 긴박하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시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했고, 영똥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요 지도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말씀이 변화시켰습시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 노래가 반복되는데 그 내용은 ‘톨레 레게(들고 읽어라)’입니다. 저런 노래가 있었나 생각하다가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서 가장 처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14절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임해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고, 역사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빛진 자로 살아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과 거룩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에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 진리와 절대적 선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교회에서의 설교나 제자훈련의 초점은 대부분 진리와 선에 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 아름다움은 주변적이고 중요하지 않으며 선택적인 것처럼 보인다. 아름다움은 다른 간절하고 필수적인 욕구가 많은 이 세상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다. 오래된 종교적 건축물들의 아름다움과 오늘날 교회 건물을 비교하면 미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쇠퇴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름다움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성경은 아름다움이 진리나 선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캐런 프라이어(Karen Prior)는 “진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선은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이며, 아름다움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했다. 신학자 윌리엄 더르네스(William Dymess)는 <시각적 믿음, Visual Faith>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을 향해 사용하신 ‘좋았다’는 단어는 선함과 아름다움 모두를 가리킨다”며 진선미

(眞善美)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전 3:11)라는 말씀처럼 아름다움은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반영한다. 그분이 만드셨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며,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성막 건축의 세부 장식을 지시하실 때 임재하실 곳을

이는 성 어거스틴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에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아름다움이란 완전성, 비율(조화), 명료성의 세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의한다. 기독교의 미의 개념에 플라톤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인 오늘날은 미에 대한 관념이 매우 주관적이다. “당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상대주의적 주장을 생각해 보라. 어떤 사람은 감자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개인의 취

변증학 교수 윌리엄 애드가는 예술을 정의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아름다움 즉 자연의 어떤 부분, 삶의 희노애락, 하나님의 거룩함 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둘째, 그 표현의 기술이 잘 훈련되고 세련되어야 하며, 셋째, 특히 아름다움의 내용이 진리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름다움의 정의에 대해 성경적으로 충실하다는 것은 삶의 다른 부분과 같이 예술에서도 ‘창조-타락-구속-완성’에 대한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를 종교적 예술에만 국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가 창조의 영광만을 표현하고, 타락의 불행을 무시한다면 정지하지 못한 것이며, 반대로 작품이 악과 불행만 묘사한다면 소망이 결여된 것이다.

아름다움은 본질적으로 육체적 감각을 통해 육체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영향을 받은 사람은 감각적 경험이 자신의 형성과 세상 이해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요 1:14)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복음은 완벽한 진선미를 모두 갖춘 하나의 큰 이야기다.

## “성경은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리킨다.

## 복음은 완벽한 진선미를 모두 갖춘 하나의 큰 이야기다.”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명령하셨다. 또 성경 자체는 이야기, 해설, 이미지, 음악성, 가르침이 뛰어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언어를 사용해서 진리를 표현하는 다양한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름다움은 다양한 예술작품들에 미친 영향으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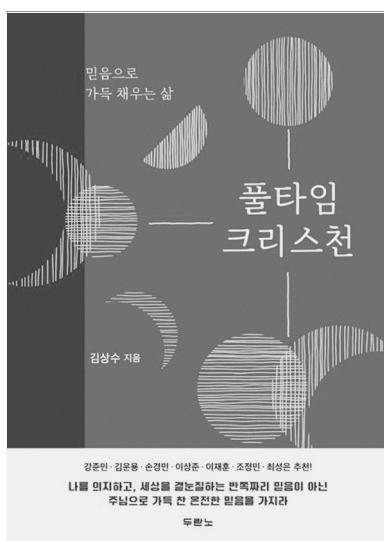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변호하려면 사려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 보통 아름다움을 정의하라는 질문을 받을 때 성경이 아니라 플라톤의 정의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플라톤은 <향연, The Symposium>에서 아름다움을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조화 또는 비율이라 정의했다.

항 문제로 변질시켜 미의 절대적 기준을 해체해 버린다. 성경적 혹은 고전적 아름다움의 정의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심지어 변기나 하수구의 내용물이 캔버스에 등장하기도 한다. 소음, 괴성, 불협화음, 심지어 욕설마저 음악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미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성경적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계시에 비춰 아름다움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확장해야 한다. 웨스트민스트 신학교의

## 추천 도서

## 24시간 풀타임 영성!

<풀타임 크리스천>  
김상수 저 | 두란노 | 16,000원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센 변화의 바람은 탈종교화, 세속화, 다원주의, 초교

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결코 만만하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앞에 주님만 의지하는 절대믿음과 절대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준다.”(김운용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의 세 번째 책 <풀타임 크리스천>의 추천사 중 하나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무신론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김상수 목사가 지난 2개월의 안식월 중에 크리스천의 내면세계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저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구원과 믿음과 유기적 관계를 연약의 관점에서 풀이한 내용이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한국 교회의 믿음의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대안까지 제시한다. ‘풀타임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김상수 목사는 이 책에서 신앙을 파트타임,

하프타임, 풀타임이라는 키워드로 구분했다.

파트타임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을 알되, 삶의 주도권(initiative)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자기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같은 신앙, 명목상의 크리스천을 의미한다.

하프타임이란 스포츠경기에서 ‘작전 타임’을 의미하는데, 작전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에 중요한 개념이다. 성경에서는 ‘광야’가 하프타임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프타임 크리스천은 늘 우선순위(priority) 문제로 갈등한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쉽게 흔들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온실이 아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 그곳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갈등하며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풀타임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의 소유권(ownership)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과 세상 유혹을 극복하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한다.

“당신은 오늘 어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파트타임이나 하프타임 크리스천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절대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방위적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지 못하는 성도,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방황하는 성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24시간 풀타임 크리스천의 영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1. 성도들의 실천기 2. 친환경 기업 3. 친환경 교회

## “생활이 변하면 신앙도 변합니다”

이호진 자매, 송현정 순장, 박민균 다락방장의 변화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어가는 성도들의 실천 캠페인이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오는 2월 2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9일(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지난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계기로 지금까지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 아끼는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이호진 자매(강서공동체), 송현정 순장(S브릿지공동체), 박민균 다락방장(S브릿지공동체)이 주인공이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 생활의 변화가 신앙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했다”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작은 실천으로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호진 자매, 송현정 순장, 박민균 다락방장(왼쪽부터).

한 번은 쉽지만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호진 자매, 송현정 순장, 박민균 다락방장의 실천이 더욱 귀하다. 이호진 자매, 송현정 순장, 박민균 다락방장은 지난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건강해졌다.

###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창조질서 회복시키고

이호진 자매는 생명과 환경보호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2015년 무렵 온누리교회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환경보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저는 교회에서 하자는 일은 곧잘 따라 합니다(웃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일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환경보호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부터 교회와 성도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호진 자매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생명과 환경보호가 신앙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순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환경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 크리스천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안하는 실천 사항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몇 가지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호진 자매에게는 텀블러를 이용하고,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별것 아닌 습관 같지만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호진 자매의 변화가 놀랍고 대단하다. 그날 온누리교회 커피숍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는 성도는 이호진 자매 단 한 명뿐이었다. 이호진 자매가 1년 동안 생명과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실천을 이어오면서 경험한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이다.

“홍대 앞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서 있으면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실천하는 게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창조질서를 회복시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 창조질서 회복하는 일!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부모 슬하에서 자란

송현정 순장은 전기사용량 줄이기, 난방비 줄이기가 몸에 배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지켜오고 있다. 지난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의 제안이 그녀에게는 그리 특별할 게 없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딱 하나 아주 특별한 게 있었다. 지금까지 실천한 다양한 습관들이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거라는 인식이 정말 새로웠습니다.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킨다고 하니 마음이 더 쓰이고, 더 큰 의미부여가 됐습니다.”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나서 송현정 순장은 지인들에게 더욱 뽕뽕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과거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등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잔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 전체가 실천하는 제안들이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데 각 공동체에서 줍깅(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환경은 생명이고, 생명은 환경입니다

환경과 생명은 떼려야 뗄 수 없다. 박민균 다락방장은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면서 더욱 건강해지고 있다.

“제가 아토피를 앓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환경적인 요인이 큰 피부질환입니다. 지난해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제안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생긴 몇 가지 좋은 습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민균 다락방장이 가장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습관은 걷기다.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집까지 약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닌다.

“당연히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체질 음식 먹기, 걷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제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섭리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섬세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은 생명이고, 생명은 환경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면 좋겠습니다.”

### 2023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제안

- 미사용 공간 소등하기
- 컴퓨터(매일) 데이터 정리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분리수거 잘 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일터에서 내 컵 만들기
- 이면지 활용하기
- 종이영수증 대신 온라인 명세서 받기
- 잔반 남기지 않기
- 헌혈하기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여하기



# 내 꿈은 하나님 증거하는 삶!

## NGO 타이니씨드 사무국장 신진호 성도의 삶과 고백

신진호 성도(김포공동체, 창조과학회 이사, NGO 타이니씨드 사무국장)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정말 많다. 개인 사진전을 열 만큼 사진 실력이 탁월하고, 뇌 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지적능력이 탁월하다.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도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신진호 성도가 자랑하는 가장 큰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신진호 성도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한 지 2년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미얀마에 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미얀마 국민이 잊히는 그 2년 동안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삶을 견디고 또 견디고 있다. 미얀마 국민 17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무려 7만 명이 해외로 피신했다. 물가는 40% 이상 폭등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다. 미얀마 군부에서 올해 8월 총선을 치르겠다고 예고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반대세력 탄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NGO ‘타이니씨드’는 미얀마 국민을 섬긴다. 그들의 일상을 사진에 담아 사진전 ‘그들에게서 나를 보다’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사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미얀마 국민의 삶을 보고 미얀마를 잊지 않고 중보기도 하기로 또 한번 결심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군부에 맞서는 시민군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남성들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가도 폭등했습니다. 가격이 2-3배까지 오른 품목들도

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하면 3만 켄(원화 1만9천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을 쌀 40kg가 5~10만 켄입니다. 그래서 다섯 살짜리 아이들도 벽돌 공장에 일하러 나옵니다.”

###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시위에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선 남편까지 행방불명 된 여인, 시위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 다섯 살 된 자녀를 공장에 보내야 하는 부모의 삶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진호 성도는 미얀마 국민의 삶이 마냥 불쌍하지 않은 않다고 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국민의 삶이 파헤쳐지고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가 2년이나 문을 열지 않아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졌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에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다섯 살 자녀와 벽돌 공장을 함께 다녀도 굶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삶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엿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NGO 타이니씨드에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NGO 타이니씨드가 만드는 변화

타이니씨드는 국제 개발 NGO다. 빈곤 가정과 마을 공동체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면서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와 인도에서 각 20여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NGO 타이니씨드가 한 가정을 지원하면 한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에서 벗어난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돕는 기독교적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NGO 타이니씨드는 미얀마와 인도 사람들이 극빈에서 탈출하도록 경제적 지원, 환경 개선,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요소를 찾습니다. 각 가정 맞춤형 비즈니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들이 그 시스템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년이 지나면 타이니씨드에게 제공받은 시스템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타이니씨드의 전략입니다. 그 이웃이 성장하면 또 다른 이웃을 후원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되면 마을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NGO 타이니씨드는 지금까지 미얀마와 인도에서 40여 개 마을의 자립을 도왔다. NGO 타이니씨드의 직원은 사무국장인 신진호 성도와 현지인 코디네이터 정도다. 그 적은 인원으로 성과가 대단했다. 신진호 성도는 NGO 타이니씨드의 성공 비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꼽았다.

“극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쏟아부었거나 단 한 차례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안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처럼 살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을이 변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불교와 무슬림이 주를 이루는 미얀마에 5개, 인도에 6개 교회 가 세워졌습니다.”

###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라!”

신진호 성도의 이력이 정말 화려하다. 물리학을 전공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뇌과학을 연구한 창조과학회 소속 이사다. 창조과학자로 더 나은 강연을 하기 위해 서울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도 전공했다. 사진작가로도 오래 활동했다. 지금은 NGO 타이니씨드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의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물리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박사과정 들어가기 며칠전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려 했으나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눈물로 몇 주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낫지 않더라도 저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리를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창조과학자로서 경력을 쌓고 지방대학교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링킹더월드’(NGO 타이니씨드 전신)라는 NGO 단체를 알게 됐다.

“링킹더월드는 국제개발 NGO 단체인데 저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NGO 링킹더월드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있던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원금을 모두 들고 해외로 잠적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상황을 수습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NGO 타이니씨드 사무국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자부터 사진작가, NGO 사무국장까지 성격이 정말 다른 일이지만 신진호 성도에게는 모두 같은 일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가 사진전을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국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미얀마 국민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요.”

신앙과 생활

# 하나님과 동행,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 크리스천의 새해 목표를 이루는 세 가지 방법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다짐하고 목표를 세운다. 운동, 다이어트, 결혼, 연애 등 자신의 바람이 가득 담겨있다.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더해 신앙과 관련한 목표를 세운다. 성경일독, 새벽예배, 전도, 가정예배, 큐티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를 완수하는 게 쉽지 않다. 사실 매년 세우는 계획인데 매년 실패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야심차게 세운 새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기자가 직접 성경일독, 큐티, 가정예배에 도전하면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경일독’, ‘매일 큐티(QT)’, ‘가정예배’.  
기자의 새해 목표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매년 세우고 매년 실패하던 목표를 과연 올해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자에게는 고질병이 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감이 있다.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말이다. 강박감이든 교만이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무엇 하나 잘못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자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일독과 큐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부끄럽지만 성경일독을 매해 목표로 세웠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만나는 순간 집중력이 흐려진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글자만 줄줄이 읽어 내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다 결국 성경책을 덮고 만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부터 읽기로 했다. 읽기 무서운(?) 구약은 조금 뒤로 미뤄두기로 했다. 그 대신 조금 더 친숙한 신약을 먼저 읽으면서 성경과 친해지는 방법을 선택했다. 전에는 성경의 순서대로 제대로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성경 읽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여겼다. 기자의 또 다른 새해 목표는 ‘매일 큐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일 아침 큐티’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세운 목표인데 정말 쉽지 않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자 했지만 벌써 실패한 날이 많다. 그래서 매일 큐티에

|              |              |          |        |   |   |
|--------------|--------------|----------|--------|---|---|
| 1월           |              |          |        |   |   |
| ■ 말씀 묵상      |              |          |        |   |   |
| 월 날짜         | ■ 본문         | □ 하영     | □ 월규   | + | → |
| 월 2023.01.01 | 마고복서 1:1-11  | ☑        | ☑      |   |   |
| 월 2023.01.02 | 마고복서 1:12-27 | ☑        | ☑      |   |   |
| 월 2023.01.03 | 마고복서 2:1-13  | ☑        | ☑      |   |   |
| 월 2023.01.04 | 마고복서 2:14-26 | ☑        | ☑      |   |   |
| 월 2023.01.05 | 마고복서 3:1-18  | ☑        | ☑      |   |   |
| 월 2023.01.06 | 마고복서 4:1-10  | ☑        | ☑      |   |   |
| 월 2023.01.07 | 마고복서 4:11-17 | ☑        | ☑      |   |   |
| 월 2023.01.08 | 마고복서 5:1-11  | ☑        | ☑      |   |   |
| 월 2023.01.09 | 마고복서 5:12-20 | ☑        | ☑      |   |   |
| 월 2023.01.10 | 빌립보서 1:1-11  | ☑        | ☑      |   |   |
| 월 2023.01.11 | 빌립보서 1:12-21 | ☑        | ☐      |   |   |
| 월 2023.01.12 | 빌립보서 1:22-30 | ☑        | ☑      |   |   |
| 월 2023.01.13 | 빌립보서 2:1-11  | ☑        | ☑      |   |   |
| 월 2023.01.14 | 빌립보서 2:12-18 | ☑        | ☑      |   |   |
| 월 2023.01.15 | 빌립보서 2:19-30 | ☑        | ☑      |   |   |
| 월 2023.01.16 | 빌립보서 3:1-9   | ☑        | ☑      |   |   |
|              |              | 진행률 100% | 93.75% |   |   |

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적용했다. 아침에 큐티하지 못한 날에는 점심을 먹고 하거나 잠들기 전에 했다. 그것마저 하지 못한 날에는 그 다음 날 이틀 치 말씀을 묵상했다. 전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내다가 아침 큐티를 하루라도 놓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손 놓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큐티를 이어가고 있다. 가정예배만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적용할 목표가 또 있을까 싶다.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하는 고민이 있다.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 예배 순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이다. 가정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여기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가정예배를 매주 드리면 정말 좋지만 힘들다면 2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다.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기자 부부는 2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씀을 정할 때도 남편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의논하며 고른다. 신혼부부다 보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아가서> 말씀을 주로 나누고 있다. 가정예배 순서도 거창하지 않다. 함께 말씀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전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하기 힘든 일도 함께하면 수월하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금세 지쳐버리는 기자에게 새해 목표 달성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다. 그들 덕분에 작심삼일로 끝날 줄 알았던 새해 목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역시 함께하면 더 즐겁고, 더 잘할 수 있다. 기자는 친구들과 함께 성경일독에 도전했다. 총 세 명이다. “구약은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는 의견도 친구가 났다. 여럿이 모



- ① 큐티 묵상 내용과 기도제목을 모아두는 노션(Notion) 페이지.
- ② 친구들과 함께 성경일독을 도전하는 단체채팅방.

이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좋다. 매일 각자 편한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마음에 남는 말씀을 단체채팅방에 남긴다. 하루 정도는 말씀을 읽지 않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날에도 어김없이 친구들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친구들이 묵상한 내용을 읽으며 다시 의지를 불태운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매일 큐티와 가정예배 동역자는 남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다. 기자 부부는 메모와 문서, 일정 등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노션’ (Notion; 메모, 문서, 지식 정리, 프로젝트 관리, 공개 웹사이트 등의 기능을 통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한 내용과 기도제목을 모아둔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읽고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한다. 남편과 함께 말씀 읽고 예배드리기는커녕 말 한마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 아용다용하는 날이 많다. 집안일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늦잠을 잔다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외출할 때 보일러 전원을 끄고 나갔다고 언성을 높이는 날도 있다. 남편과 다투는 날이면 입을 꼭 닫고 싶은데, 매일 함께 큐티하고, 토요일에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화해할 수밖에 없다. 화해하지는 말을 하기가 머쓱해서 “큐티하자”고 말하는 날도 있다. 혼자 말씀 읽고 큐티할 때는 쉬고 싶은 날, 기분이 안 좋은 날 등 컨디션을 따르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덕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혼자 하기 힘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도전하면 더욱 좋다. 손안에서 간편하게!

있는 콘텐츠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기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매일 큐티에 도전하고 싶은 성도들이라면 두란노서원에서 출시한 ‘두플러스 QT플랜’ 구독을 추천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노트북 등에서 <생명의 삶>과 동일한 큐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말씀 본문은 물론이고, 해설과 에세이까지 들어있다. 글을 읽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디오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럿이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싶다면 단체채팅방과 애플리케이션 ‘노션’을 활용하면 좋다. 단체채팅방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묵상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모티콘, 문자, 스티커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단체채팅방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과 말씀 묵상을 나누는 방을 분리하는 게 좋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서 말씀 묵상을 함께 하다 보면 이야기가 섞여서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체채팅방보다 말씀 묵상을 집중적으로 나눌 공간이 필요하다면 애플리케이션 ‘노션’을 추천한다. 말씀 묵상을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수정하는 내용까지 모두 공유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한 내용을 매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 안에 성공률 등을 표기할 수 있는 표를 만들 수 있어서 말씀 묵상 내용과 성공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크리스천의 가장 큰 새해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내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새해 목표를 이루는 힘을 매일 얻을 수 있다.

성도들의 다양한 새해 목표와 성공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 공유: 온누리신문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이메일 (hha0@onnuri.org).

## 맛있는 말씀 해설

##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창 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이 말씀을 들어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 신학자들은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는 말씀을 두 가지 해석을 한다. 하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수명이 앞으로 감소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창세기 족장들의 나이가 대홍수 심판 이후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타당한 해석 중 하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 한 그들의 날을 미래 사람들의 수명 120년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해석, 즉 120년이 대홍수 심판까지 남은 은혜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전체 흐름에서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에서 추방된 아

담과 계속 대화하셨고, 살인자 가인과도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을 멈추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심판의 경고와 함께 120년이 아직 남아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미 세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방주를 만든 기간은 길어야 70~80년 정도다.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셋, 함, 야벳을 낳았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셋, 함, 야벳이 성장해서 결혼한 나이를 고려할 때 방주 건조 기간은 120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유 1:14~15)며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120

년 전에 하셨을 뿐 아니라 훨씬 이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도 하셨다. 에녹이 이 예언을 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으나 에녹 65세에 므두셀라를 낳고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중에 예언하였을 것이다. 그의 아들 므두셀라 969세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므로 최소한 대홍수 심판 669년 전에 하나님께서 못 사람들(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경고가 에녹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첫 번째 600여 년 전, 두 번째 120년 전, 마지막은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이뤄졌다.

노아의 방주는 높은 산 위에서 지어진 것이 틀림없다. 홍수가 40일 계속되어 물이 많아지고 난 다음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창 7:17). 노아와 그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홍수를 대비해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과정 자체가 대홍수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하나님은 전 지구적 심판을 반복해서 경고하셨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

도 방주에 타지 않고 모두 멸망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120년이라는 숫자까지 주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진지하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심판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7:26).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무시한다. 그들은 창조를 믿지 못하므로 마지막 심판이 있음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므로 영생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창조와 부활, 그리고 재림 신앙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이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

2월 13일~19일  
사무엘상 12:16~15:9



##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그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묵상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 왕을 요구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깨우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건조한 시기에 폭우가 쏟아지는 기적으로 진노를 나타내신다. 이 일로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사무엘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라고 당부한다. 또 그는 자신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노라 다짐한다.

목상포인트 2: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도, 강력한 블레셋의 철 병거(전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모인 백성이 흩어질까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백성의 인원수를 더 의지한 것이다. 사울이 전쟁 전에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불순종 행동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하자.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때 제사를 주도할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는다.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다.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한다.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고 전한다. 사울의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연이은 전쟁으로 지친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서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다.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긴다.

목상포인트 3: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간다. 그가 대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요나단의 믿음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묵상하자.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믿음으로 행동한다. 수적 열세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는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신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두 명을 발견하고 조롱한다. 요나단은 올라오라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음을 확신한 요나단은 순식간에 20여 명을 죽인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요나단을 위해 하나님은 지진이라는 초자연적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나는 어떤 대상을 마음과 삶의 왕좌에 두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거부하지는 않는지 점검하자. ▶‘무모함’과 ‘불순종’은 믿음 없음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일의 결과는 물리적 수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패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 친구를 위해서!

지난해 7월 동성애자 친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던 자매입니다. 감사 인사와 더불어 제 친구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신 덕분에 친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낯설고 어색해서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났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친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궁금 해하지만 아직은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성에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남 횟수 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끼도록 기도해주시고, 친구가 동성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 이정환 목사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1. 부부

## 행복한 가정으로 향하는 첫걸음

“당신의 부부 관계는 만족스럽습니까? 상대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한 리서치 기관에서 질문했다.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40대 이상 부부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 1,200여 명 중에서 30%만이 “지금의 배우자에게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의 의미는 정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마지못해 사는 부부가 많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주체가 부부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데, 안타까운 것은 부부 관계에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부부가 냉랭한 사이가 되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지내게 된다. 이러한 부부 관계는 자칫 배우자의 외도로 이어지거나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만들게 된다.

나 또한 부부 사이 때문에 격정스러웠던 적

이 있었다. 신혼 초 우리 부부는 사소한 다툼이 잦았다.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합쳤으니 당연한 진통을 겪는 거라고 생각했다. 머리로는 다툼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는데도 웬일인지 다툼이 멎을 줄을 몰랐다.

“칭찬해줘야 사랑이 일어난다.  
오늘부터 서로의 다툼을 칭찬해보자.  
행복한 가정으로 향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 부부는 다툼의 원인이 서로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MBTI 검사 결과 나는 ‘ISFP’ 형이고, 아내는 ‘ISTJ’ 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매우 이성적이고 조직적이며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치밀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철저한 성격인 ISTJ 형과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전혀 계획적이

지 않은 ISFP형은 극명하게 달랐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갈등이 멎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서로의 다툼을 깨닫게 된 우리 부부는 대화를 통해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냈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아내는 철두철미한 성격을 조금 내려놓음으로써 서로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그 결과 아내는 즉흥적인 모습으로, 나는 조직적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서로의 다툼을 인정하면 평화가 찾아온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왜 성경은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과 배려를 덕목으로 말씀하셨을까? 남자는 가정에서 존경받아야 사랑할 용기가 생기고, 여자는 사랑받아야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고, 칭찬해줘야 사랑이 일어난다. 이는 곧 “서로의 다툼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으로 칭찬하라”는 말과 같다. 오늘부터라도 서로의 다툼을 칭찬해보자. 그것이 행복한 가정으로 향하는 첫걸음일 테니 말이다.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담당)

##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 부부의 긍정적인 긴장감 유지

부부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깝고 특별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성인이 어느 시기에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서로에게 평생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 일반적인 관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가까운 관계다. 더 나아가 가까운 관계를 넘어서 하나 된 관계로 묶인다. 부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 된 친밀감을 누리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너무 익숙해지면 때로 서로의 관계가 무덤덤해지고, 정중한 예의가 사라지기도 한다. 서로를 봐도 떨림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감정적인 느낌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시들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무덤덤해지는 시기는 부부마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다. 매우 빠르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시기를 만나는 부부도 있고,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무덤덤함을 경험하는 부부도 있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무덤덤하게 느끼는 시기를 ‘권태기’라 할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흥미의 하락 단계’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무덤덤해진 관계에서 부부는 관계의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 이 시기에서는 서로에게 관심이 식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서로에 대한 불만을 쉽게 표출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된다.

부부 관계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따뜻한 온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전에도 좋았지만 현재와 앞으로가 더 좋아지는 특별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다. 부부는 성장을 목표로 발전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이 바닥이 났다면 서로에 대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긴장감을 다시 갖는 게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된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설렘과 같은 온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적당한 긴장감과 서로에 대한 다소의 긴장감이 유익을 제공할 수 있다. 부부 관계가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고 여겨져서 무엇인가 새로운 작은 시도조차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부의 긍정적 긴장감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 부부가 결혼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긍정적인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첫째, 부부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랑스럽게 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의라도 지켜달라”는 말이 있다. 부부가 서로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지내다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예의다. 예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격식 있는 행동과 예의바른 말 정도의 수준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것을 말한다. 더 여유 있게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 더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 먼저 배려해주는 행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의 있게 대접을 받았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 따뜻함과 자기 존재에 대한 존귀한 느낌을 받는다. 예의 있게 대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

부일 때 행복감과 친밀감은 더 깊은 경험으로 부부가 하나 됨을 느끼게 한다.

둘째, 부부의 언어 사용에서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로 서로를 대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간혹 서로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부부도 있다. 말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서로를 과격하게 공격하고 마음을 해치는 파괴적인 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욕설은 상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상대의 인격을 밟는 것이다. 어쩌면 육체적인 폭력을 뛰어넘는 더 심각한 인격적인 폭력이다. 폭력적인 욕설이나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부부가 언어 사용에서 의식적으로 무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부부의 긍정적인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욕설과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대화 패턴을 내려놓는 것이 부부가 긍정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셋째, 자녀들과 타인 앞에서 자존감을 세워줘야 한다. 부부는 자녀를 비롯한 타인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세워줘야 한다. 타인들 앞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장면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친밀감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지 않고 세워줄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이 다소 식었더라도 부부가 의식적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서 인격을 세워줄 수 있다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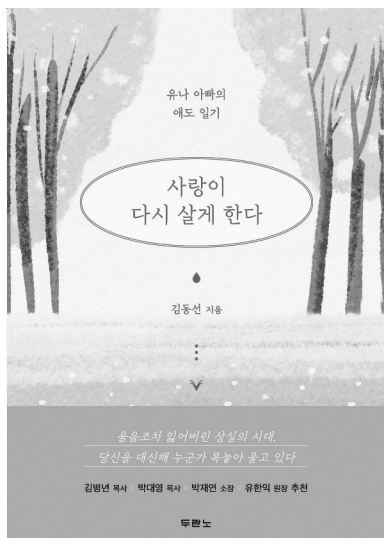
관계가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면서 나타나기 가장 쉬운 것이 상대방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다. 예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농담으로 서로의 인격과 행동을 비꼬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도 인간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 부부 사이만큼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도 없다.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만을 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게 부부 관계다. 서로를 위한 노력과 헌신에 감사하는 모습이 부부 사이를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부부는 서로를 더 세심하게 세워주고 서로를 타인 앞에서 깎아내리는 말과 태도를 삼가야 한다. 이러한 행동과 자세가 부부의 긍정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자신이 본의 아니게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무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배우자를 귀하게 여겼던 잃어버린 첫사랑 시기의 소중한 행동 습관을 찾아서 회복하고 진심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고전 13:5).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한 '놓치기 아까운 책'

## 상실에서 부활에 이르는 어느 아버지의 애도 일기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  
김동선 저 | 두란노 | 14,000원

3.15부정선거. 하필 생일이 3월 15일인 내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붙여 준 별명이다. 그 덕  
분에 한동안 내 생일은 친구들 사이에서 화사  
한 봄꽃들이 피어나는 날로도, 설렘과 기대감

이 심장을 두근대게 하는 새 학기의 시기로도  
기억되지 못하고, 칙칙하게 얼룩진 역사의 한  
구석쯤으로 장난삼아 회자하곤 했다.

같은 봄 3월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상실의  
계절'로 자리 잡았다.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  
>의 저자 김동선 목사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  
던 2018년 3월 15일 당시 만 7세 딸 유나를 하  
루아침에 천국으로 떠나보냈다. 웃음 많던 어  
린 딸아이의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는  
줄 아무도 몰랐다. 뇌종양이 커져 출혈이 일어  
나 머리가 아프고 헛구역질을 했다. 아이를 데  
리고 응급실에 달려간 지 24시간도 안 돼 유  
나의 열 살 오빠가 그 병원에서 가장 어린 상  
주가 되었다. 벼락같이 들이닥친 상실 앞에 저  
자는 하루하루를 착실히 기록했다. 하나님께  
파지기도 하고 옆드려 묻기도 했던 그 모든 기  
록을 돌아보며 저자는 이를 상실, 애도, 수용,  
소생의 4단계로 나누고 '상실의 여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저자는 울음이  
왈각 솟구치기도 하고 원망이 솟아나기도 하  
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은 때도 있었다. 저자는

갑자기 찾아온 무자비하고 난폭한 상황에 그  
저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  
다. 생과 사의 갈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인간 연약함의 낯것을 그대로 묘사했다.

저자는 찬찬히 딸의 유품을 정리하기도 하  
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기도 한다. 그  
리고 누구에게라도 쏟아 놓아야 할 마음속 분  
노를 그 일기장에 불경스럽고 거친 언어로 하  
나님께 쏟아붓기도 한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전에 알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였다.

한동안 자식을 잃은 다른 저자들의 책들을  
찾아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러면서 슬픔을  
인정하고 이 슬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  
했다. 여전히 추운 겨울이지만, 그 추위를 이  
겨 낼 힘이 생겨나고 있다.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깊이가  
알아지지도 않는다. 너무 짧게만 느껴져 원망  
하던 딸의 7년 6개월 삶이 이제 선물처럼 느  
껴지고, 서글퍼질 때마다 딸아이가 좋아하던  
곰탕집에 가서 몸과 마음을 덥힌다. 딸이 좋아  
하던 분홍색이 자취를 감춰 버린 빨랫감 앞  
에서 소리 죽여 울기도 하고, 충분히 애도하며

마음속 상처와 고름을 내보낸다. 마음속 괴물  
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기도 한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며 아픔 때문에 더  
욱 부활을 꿈꾼다.

떠난 딸의 삶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딸의 못다한 말을 대신 전하고자  
이 책을 썼다.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과 함께하기 위함도 있다. 저자는 죽음의 이면  
은 삶이라는 진리를 아프게 배움으로써 마음  
껏 울고 슬픔을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  
면서 '상실 생존자'로서의 소명을 다해 자비  
하신 아버지를 끝끝내 만나자고 제안한다. 그  
아버지의 애도 일기와 함께 각 장 끝에 묵상  
메시지와 기도문을 넣어서 독자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양윤선 작가의 따뜻한 일러스트가 고요한 애  
도의 시간과 순례의 여정을 돕는다.

이 책은 상실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는 사랑하  
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  
은 위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 홍문희 편집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 ‘화진포’에 서린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  
화해설사, <강화도(준엄  
한 배움의 길)> 저자)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는 동해안  
에서 가장 큰 자연  
호수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북부  
동해안은 서해안  
만큼은 아니지만  
돌쫓날쫓한 해안  
이었다. 시간이 흐  
르면서 모래가 조  
금씩 쌓이고 어느

덧 독이 되어 호수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호  
수를 ‘석호’라 한다. 강릉에는 경포호와 향호  
가 있고, 속초에는 영랑호와 청초호, 고성에  
는 송지호와 화진포가 있다. 그밖에 크고 작  
은 호수가 해안을 따라 연이어 있다.

화진포는 호숫가에 해당화가 만발해 붙여  
진 이름이다. 멀리 금강산 향로봉이 호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철새들이 넓은 갈대밭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호수 주변 낮은 산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장관을 이룬다. 소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로 사위하며 걷노라면 저절  
로 콧노래가 흥얼거려진다. 호수 너머에는  
광활하게 펼쳐진 동해 물결이 넘실거린다.  
물마루에서 밀려온 파도가 하얀 포말을 해안  
으로 밀어 올리면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 서  
걱서걱 밟히는 모래밭을 거닐게 된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화진포를 관광지로 개  
발하면서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이



기봉 별장’을 자랑으로 내세웠다. 세인(世人)  
들에게 솔깃한 주제가 틀림없다. 김일성 별  
장이 화진포에 있다니 궁금하지 않을 리 없  
다. 그러나 김일성 별장과 이기봉 별장은 그  
들이 지은 집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선교사  
들이 휴양을 위해 지은 집이다. 나는 오래전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휴양촌으로 답사 간  
적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렇게 수근거렸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왔다더니 노고단에  
다 별장을 짓고 호화롭게 살았구먼!”

알면 보인다고 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는 가슴 아픈 일이 많았다. 풍토병 또  
는 전염병은 여름에 창궐했다. 선교사들은  
궁여지책으로 인적 드문 곳에 휴양촌을 짓고  
여름철에 잠시 휴식했다.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하기 위한 잠깐의 쉼이었다. 지역별 선교  
본부에서 적당한 곳에 휴양촌을 만들었다.

화진포 휴양촌은 원래 원산만에 있었다. 일  
제강점기 일본이 원산만에 군사기지를 건설  
하면서 휴양촌을 강제수용하며 허락한 땅이  
화진포다. 원산만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  
진 화진포는 금강산과 가까웠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선교사들에게도 만족스러운  
땅이었다. 크리스마스 썰로 유명한 셔우드  
홀 선교사가 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의 ‘화  
진포의 성’ 부분에 그 내막이 기록되어 있다.  
원산만에 오두막을 짓고 가끔 머물며 휴식을  
취하던 선교사들은 화진포로 오두막을 옮겨  
야 했다. 각자 적당한 거리에 터를 정하고 옮  
겨지었다. 오두막은 목재로 된 것이어서 인  
부를 동원해 옮길 수 있었다. 셔우드 홀은 바  
다와 호수가 보이는 언덕을 선택했다. 마침  
독일인 베버씨가 직접 짓겠다고 나섰기에 일  
을 맡기고 병원 일에 전념했다. 얼마 후 화진  
포에 온 홀 부부가 경악했다. 오두막이 아니  
라 작은 성을 건축해놨기 때문이었다. 무엇

보다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놀랐다. 그러나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건축비  
와 마침 평양에 갖고 있던 작은 토지가 매매  
되어서 건축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김일성 별장으로 알려진 곳은 셔우드  
홀의 ‘화진포의 성’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셔우드 홀과 메리  
언 홀’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다. 그밖  
에도 남북관계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옥상  
에 올라가면 호수, 바다, 금강산이 조망된다.

이기봉 별장도 다른 선교사의 오두막이었  
다. 다른 오두막들은 목조로 된 것이어서 남  
아 있지 않다. 해방 이후 이 지역은 북한에 속  
하게 되었고,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을 데리  
고 와서 묵은 적이 있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남한 땅이 되었고, 호수 언덕에 ‘이승만 별장  
>이 추가로 들어섰다.

화진포 해안과 호수, 솔숲을 거닐면서 땅끝  
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봤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아픔이나 지  
금도 흠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아픔이 동일하다. 내가 겪지 않으면 피상적  
공감을 하게 된다. 화진포에서 저 아름다운  
풍광 너머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선  
교사들의 땀과 눈물, 기도를 조금이나마 공  
감했다. 너무 아름답기에 역설적으로 그 아  
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선교  
를 마음에 품고 싶으면 화진포를 다녀오기를  
권한다.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 온누리전도학교 3월 19일 개강

2월 12일~3월 12일까지 아이스쿨 신청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돕는다.

이번 온누리전도학교는 서빙고, 양재, 부천온누리교회에서 개강한다. 3월 19일(일)부터 5월 28일(일)까지 10주 동안 이어진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 홍보관,

부천온누리교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양재온누리교회 조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해 매주 온라인으로 과정을 운영한다. 전도학교 비전, 기본전문, 스토리텔링 전도, 전도지 <최고의 행복> 시연, 반대질문에 대한 대답, 상황별 접촉점 등을 주제로 장경문 장로(양천공동체, 온누리전도학교)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 온누리교회 성도는 아이스쿨에서 '전도학교'로 검색해서 신청하

면 된다. 타 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이름, 전화번호, 소속교회, 교재 발송용 주소)를 보내면 된다. 타 교회 성도 대상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 010-6354-7813  
양재 010-9001-6243  
부천 010-7705-0309  
/ 정현주 기자 joo@onnur.org

### 말씀 먹으며 자라는 차세대!

#### 꿈아이놀이터 어린이 및 교사 모집

차세대 신앙교육 프로그램 '꿈아이놀이터'에서 참가자 및 교사를 모집한다. 3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QR코드 참고). 2월 13일부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꿈아이놀이터 교사도 모집한다.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자료 제작 등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가 대상이다. 교사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예배섬김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다. 문의: 010-8877-3584



### 양재 주차사역팀 봉사자 모집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시간은 일요주일예배 1~4부 사이(시간 조율 가능)다. 양재온누리교회 지하주차장, 일동제약, 교회 주변에서 주차안내 봉사를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

다. 김윤식 목사(양재 주차사역팀 담당)는 "주차 봉사는 예배당 문지기 섬김과 같다"면서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3811-6252

### 기쁨의 샘 참가자 모집

주제별 회복학교 '기쁨의 샘'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7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2월 2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기쁨의 샘은 심리치료의 유익과 한계,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연구 보완해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5150-0556

###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2-2182-9110

###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이집트-요르단' 편은 4월 2일(일)부터 8일(토)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된다. '출애굽 여정'을 주제로 성경을 배우고, '이집트 역사와 페트라 왕국 역사'를 주제로 인문학을 공부한다. '그리스-산토리니' 편은 5월 1일(월)부터 7일(일)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된다.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을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의 역사, 신학, 철학'을 주제로 인문학을 배운다. 문의: 010-4902-1022

## 2월 19일 제이홈 입양세미나

### 서빙고 꿈아이홀 오후 5시, 박요한 목사 강의

사회선교본부 제이홈사역팀(입양, 위탁 커뮤니티)에서 입양세미나를 개최한다. 2월 19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신관 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제이홈 입양 세미나에서는 박요한 목사(프렌즈교회 담임)가 강의한다. 비밀입양으로 자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지켜진 존재'라는 것을 간증할 예정이다. 제이홈 입양세미나

는 입양이나 위탁에 관심 있는 성도, 입양 가정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봉익 팀장(제이홈사역팀장)은 "입양은 정말 큰 축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입양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성도가 제이홈 입양세미나에 참석해서 입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월요어노인팅예배 15주년

### 2월 20일까지 네팔 아웃리치

월요어노인팅예배가 1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월 6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박종길 목사, 김성진 장로, 사역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요어노인팅예배 15주년을 맞아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네팔로 아웃리치를 간다. 네팔 수도, 서부, 동

부에서 다섯 차례 성경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 성도의 후원으로 네팔 주민 1천 명에게 쌀 10kg를 전달한다.

김성진 장로(월요어노인팅) "네팔 아웃리치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될 월요어노인팅의 해외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 김영선 기자

## 2월 화요성령집회 '영점 조준'

###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2월 화요성령집회가 '영점 조준'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집회가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화요성령집회 '영점 조준'에서는

2월 7일 최성민 목사 '진리의 영점 조준' (마 24:3~13), 14일 이서진 목사 '경건의 영점 조준' (딤후 4:6~16), 21일 정한효 목사 '믿음의 영점 조준' (민 9:15~23), 28일 최성민 목사 '회복의 영점 조준' (사 61:1~3)을 주제로 설교한다.

## <생명의 삶> 대학청년부판 20% 할인

### 2월 17일까지 온라인 후보 또는 정기구독센터 신청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 대학청년판 정기구독을 신청 받는다. 2월 17일(금)까지 <생명의 삶> 대학청년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정기구독 가격(48,000원)의 20%를 할인해준다. 정기구독 발송이 시작되면 취소가 어렵다.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대학청년판 정기구독 신청은 대학청년부 공동체 온라인 후보에 기재된 신청링크 또는 두란노 정기구독센터홈페이지(www.duranno.com/subscribe)에서 하면 된다.

### 양재 새가족

일시: 2월 19일 / 시간: 15:30 /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

|                                                      |                                        |            |                                                      |                                                                    |                   |                                  |
|------------------------------------------------------|----------------------------------------|------------|------------------------------------------------------|--------------------------------------------------------------------|-------------------|----------------------------------|
| 강남A<br>강영임<br>김라미<br>김수진<br>박상욱<br>오세진<br>이다현<br>황세미 | 이영성<br>이창석<br>이혜정<br>최수희<br>최이레<br>한성식 | 한아라        | 분당A<br>김경아<br>성창우<br>신순애<br>이경진<br>이은영<br>정수화<br>최종란 | 강은결<br>김민정<br>김준영<br>김찬욱<br>문영심<br>박종일<br>이채우<br>정규석<br>허해란<br>황해정 | 서초D<br>박지원<br>이효정 | 이성일                              |
| 강남B<br>강미소<br>김자영<br>박현정<br>송미자<br>안길환               | 강남D<br>강시은<br>김상화<br>정태훈<br>한새별        | 경기A<br>김선주 | 서초A<br>김선옥<br>김지원<br>오인숙                             | 서초C<br>김민지<br>심해진<br>이남경                                           | 서초B<br>서양순        | 푸른누리<br>김소민<br>김혜령<br>성용하<br>전현준 |

■ 남대문화망공동체 소식



/ 독고영 집사(남대문화망공동체)

지난 1월 18일(수) 남대문화망공동체가 새 예배처소 이전(移轉) 감사예배를 드렸다. 그 이름은 ‘엘림하우스’다. 우리가 엘림하우스를 처음 본 것은 지난 2021년 12월 12일이였다. 정태경 장로님 소개로 남대문화망공동체 사역자들이 맞선 보듯 이 건물과 마주했다. 정말 마음에 들어서 서둘러 약혼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우리의 바람일 뿐이었다. 우리는 매주 주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새 예배처에 대한 소망도 추가해서 함께 기도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소망의 기도제목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임차 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건물주의 무리한 임차조건과 고압적 태도가 예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8일 정태경 장로님께 다시 전화가 왔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했던 바로 그 건물주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니 참고 기다리라는 내용이였다.

우리가 그곳을 처음 본 날로부터 11개월 만

인 지난해 11월 1일 마침내 새 예배처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순간이였다. 이제 광야의 고난을 끝내고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시작될 줄 알았다. 그런데 건물 용도가 창고로 쓰려고 지은 곳이라서 예배 장소로 쓰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예배처소에 걸맞게 꾸미면서 젃과 꿀이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래도 찬양 인도자로 섬겨주시는 김용길 집사님 덕분에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2일 새 예배처로 이사했다. 이사하고 드린 첫 예배가 성탄을 감사하는 예배여서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엘림하우스가 예수님의 사도로 살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는 쪽방촌 지체들과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주님의 율타리가 되기를 바란다. 길 잃어버린 양들이 이곳을 찾아와 허물어졌던 삶을 재건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는 터전이 되기를 기도한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 NGO 더멋진세상 공동체성경읽기 프로젝트



/ 김솔희 대리(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56개 지역에서 공동체성경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공동체성경읽기 프로젝트는 글로벌문화재단이 오디오 바이블을 제작 및 지원하고, 현지 NGO AIM이 오디오바이블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차세대를 위한 ‘다음세대 PRS’에는 5개 지역 어린이가 272명이 참여하고 있다. 무릎에 성경책을 놓고 보던 어린이들을 위해서 NGO 더멋진세상과 글로벌문화재단은 지역별로 의사 50개와 책상 10개, 칠판 1개를 지원했다. 문해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공동체성경읽기 프로젝트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아버지를 전도한 폴린 형제의 간증을 나누고 싶다.

“야보우(Yabou) 지역의 폴린(Paulin)입니다. 오디오바이블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성경을 읽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바이블이 들어오면서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성경 청취 세션이 정말 특별합니다. 오디오 기기에서 우리 종족어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모두 숨죽이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디오바이블은 어려운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디오바이블 덕분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께 예수님 이야기와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덕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전과 달리 아버지가 저를 신뢰하십니다. 저의 언어습관도 바뀌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디오바이블을 만나게 해 준 NGO 더멋진세상과 글로벌문화재단, AIM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동반자 | 양육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빙고                                                                                                                                                                                              |     | 김태민 이흥민<br>박소희 임영미<br>이기범 주성대                                                                              | ■ 성북                                                                  |                                          | 강선아 이은경<br>김재찬 홍준표<br>김하윤 임미정<br>손하늘 강태성<br>신혜란 권숙경<br>임지연 왕진희<br>조형기 고 용 | ■ 일산                                                       |              | 김미경 김신자<br>김진수 강병조<br>노진희 박미경<br>이미연 이경순 | ■ 중종로 |     | 이현성 이용구      | ■ 한강         |     | 김동윤 최성구<br>김이수 전진국<br>박영진 이철원<br>박정규 박운순<br>송일근 이재순<br>유영혜 김은미<br>이윤진 이은정<br>이정인 임은순<br>이희승 박유경 | ■ OCC        |     | 권려원 오소주<br>박성진 최도성 | ■ S브릿지 |  | 박선아 홍소피아<br>손민호 유영석<br>신호진 최경옥<br>이남훈 김민석<br>정지유 강지원 | ■ 공동체 없음 |  | 김승겸 황병원<br>박미정 송요한<br>이상태 김형국<br>최현화 마리다 | ● 양재 |  | ■ 강남A | 권효정 이옥찬<br>김유진 이윤신<br>김진우 박정서<br>김형준 김형국<br>노재환 박창국<br>라재훈 김진세 | ■ 경기A |  | 강설화 이미선<br>박은영 임옥희<br>변종현 서원열<br>이수기 서병재<br>이혜영 박주은<br>지형근 권해옥 | ■ 과천의왕 |  | 김선만 최이조<br>김효은 권오향 | ■ 서초A |  | 김도현 두한승<br>김수정 이승미<br>김영숙 남진희<br>박현선 강숙정<br>성승웅 강창희<br>송재조 지상묵<br>신명현 이영석<br>안성민 김은정<br>이슬아 최윤경<br>임성훈 임문환<br>임현선 손금미<br>정지연 최윤경 | ■ 서초B |  | 김혜진 한나영<br>전낙근 김정민<br>장가희 오옥근<br>조 룡 이상준<br>하혜숙 강신완<br>홍혜진 신선이 | ■ 서초C |  | 김남식 김도환<br>양주현 송은영 | ■ 서초D |  | 김승진 최준환<br>김예연 김민희<br>김태훈 송진호<br>박선영 장진명<br>박성민 황병선<br>이승환 박종열 | ■ 송파A |  | 김지영 이정분<br>맹형건 주 건<br>이중희 윤길자<br>최시내 조미령<br>최영국 김양숙 | ■ 송파B |  | 김미숙 유경아<br>김연재 서영란<br>김지훈 박종선<br>심선주 정문희<br>윤두한 임영빈<br>진용의 정세진 | ■ 스페인어예배 |  | 박혜준 강희수 | ■ 양재A |  | 강윤정 김희정<br>김선희 광미선<br>김용균 김철민<br>배미남 이춘자<br>신창호 김경학<br>안상희 김민숙<br>여무상 조용희<br>이상훈 정광진<br>이효동 김영수<br>정희경 이경희 | ■ 양재B |  | 민준기 김선근<br>송호남 정은주<br>최경희 이은숙 | ■ 푸른누리 |  | 김한길 김광직<br>박한정 안민아<br>변영수 안상욱<br>손지영 임은아<br>이주선 박차홍<br>이홍래 이신준<br>표해민 장유미<br>황만주 전필수 | ■ Bridge33+ |  | 강효정 이은주<br>김은선 홍은영<br>남규민 최문한<br>박미선 이정현<br>방선희 장지원<br>이윤정 김혜련<br>이정원 강기홍<br>전명희 김성애<br>최지혜 김진숙 | ■ Point5 |  | 김대근 이상권<br>김대근 한혜원<br>양수연 정재경<br>여지원 김선하<br>이나라 송기혜<br>이윤진 이경아<br>이재현 김은영<br>주정훈 한영우<br>최정호 이지석<br>호수가 이수현 | ■ 길 |  | 윤순홍 김준홍 | ■ 여호수아 |  | 김경하 이혜옥<br>김경현 김영희<br>김동영 김기덕<br>김수윤 최보비<br>김수진 강정기<br>김현욱 이승우 | ■ 허브 |  | 강준호 송진구<br>김예은 이지현<br>김예은 이경진<br>김재철 윤성주<br>민영은 박영미<br>박찬웅 이종환<br>신서영 임미정<br>유승지 강진경<br>이상은 안혜준<br>정주은 권은경<br>최광호 안정혁<br>최소정 한지숙<br>최재경 김대현 | ■ CHPlus |  | 정성원 김주원<br>황성연 최용준 | ■ J4U |  | 김경진 김중철<br>김찬범 이종민 | 서정미 김은우<br>송지은 최영아<br>이호준 박구병<br>조형업 김병관 | ■ SNS | 강하영 김승희<br>구민아 이상미<br>권수현 성지은<br>김미애 이의형 | 김영선 박명주<br>김요한 황민영<br>김태광 윤석주<br>박지희 김혜윤<br>서영은 이지은<br>송보영 진미형<br>송해림 김은숙<br>안여진 이경수<br>양다혜 김희진<br>엄예진 임경화 | 유형은 이범석<br>이다혜 권남희<br>이종혁 이용욱<br>임정연 홍정화<br>임한준 이주호<br>장문정 이명대<br>장현선 최현숙<br>정성윤 강 건<br>최유진 김혜경 | 홍민형 김주영<br>홍세나 이경자 | ■ W |  | 강다솔 신귀현<br>곽효미 김정애<br>양예빈 김하영 | ■ 대청공동체 |  | 이진서 이성자 |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료예배: 서빙고 2월 19일(주일) 3부 예배<br>양재 2월 19일(주일) 2부 예배<br>수료대상자는 예배 30분 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br>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 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br>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br>수료예배대상자: 22년 10월 5일~23년 2월 19일 사이에<br>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빙고                                                                                                                                                                                              |     | 강인자 김세영<br>김소영 김은경<br>문정형 권기영<br>김은주 박유은<br>박진우 박유은<br>이규은 이동철<br>이선경 임명숙<br>정규섭 정미현<br>주은지 천호진<br>한진희 허후예 | 김정은 김제영<br>민덕기 박은미<br>신수연 신은향<br>윤희진 이소영<br>이윤연 이혜람<br>정혜진 최주연<br>황인정 | 윤 순 이경진<br>이선혜 이세훈<br>이준범 조익현<br>주보라 황호준 | ■ 이진숙<br>권사반                                                              | 강일화 고석빈<br>김영옥 변혜란<br>안현남 우요한<br>유선정 윤혜경<br>이민경 임은영<br>최일권 | ■ 김철주<br>장로반 | 강경희                                      | ● 양재  |     | ■ 김태완<br>목사반 | ■ 김태완<br>목사반 |     | 김태완 목사반                                                                                         | ■ 김태완<br>목사반 |     | 김태완 목사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로칼럼

‘일터 파송 사역자’로서의 사명감



박공 장로  
(신용산공동체)

오늘날 일터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큰 과제일 것이다. 일터에 있는 신우회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축복이다. 우리나라 직장 신우회 활동을 시대적으로 돌아켜 보면, 1990년대 전후가 가장 왕성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비롯해 큐티, 경배와 찬양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있었다. 직장선교 차원에서 1995년 초 ‘직장신우회협력위원회’를 설립하고, LG그룹 본사 신우회와 현대그룹 본사 신우회 예배에 교역자 설교 지원과 신우회 회원들에게 일대일제자양육(동반자)을 지원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타교인 포함) 신앙생활 세미나와 직장선교 전략세미나, 직장인 리더십 포럼 등을 개최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다.

그때 실질적이고, 직장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직장선교 활동의 안내와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런데 직장 신우회에서 대부분 예배나 행사, 모임 등을 개최하고 있어서 교회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신우회 회원 모두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일꾼)가 되지 않으면 교회 차원의 직장선교는 열정만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직장신우회협력위원회’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1997년 하반기부터 1998년까지 직장선교훈련학교, 직장사역자학교 등을 차례로 개설하고 사역자 양성에 열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역자 훈련에도 불구하고 신우회 개척 등

사역 실행에 파송된 사역자들이 거의 없었다. 당시 팀장이었던 나는 자칭 직장 선교사로 자발적으로 파송되어서 1997년 4월 30일 택시회사 사장단 17명을 대상으로 ‘기운선교회’를 창립하고 간사로 섬겼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했다. 초빙 강사 60명 중에서 온누리교회 부목사님 15명 정도 설교를 하셨다. 온누리교회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4월 회사에서 <20년사>를 발간했다. 신우회 회원들은 2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기간 말고는 매월 1회씩 모임을 거의 빠짐없이 개최했다. 다른 신우회와 차별된 특징이 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중요 업무에 관한 토론 및 나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그것이다. 한때 이원론에 빠진 회원들이 예배 시간에 세상 업무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해서 불참하기도 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상명령(문화명령)이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교회 밖 사회 현장에서는 일의 방식이 곧 성경적 세계관의 삶이다. 그렇기에 중요 업무에 대한 나눔은 꼭 필요하고, 발전적 주제다.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각자 일터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크게 요청되는지를 인식할 것이다. 특히 온누리교회 양육자들은 일대일제자양육자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이고, 일터에서 삶의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므로 각각의 일터에서 신우회든 선교회든 명칭과 관계 없이 ‘일터 파송 사역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시대적 부름에 따라 일터사역(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복음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사역칼럼

캄보디아예배 연합수련회



최영석 선교사  
(김포M센터장)

설날 연휴에 1박 2일 동안 강화도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김포, 안산, 남양주온누리M센터 캄보디아예배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연합수련회 첫날 이정빈 전도사(안산 캄보디아예배)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저녁에는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주제로 기도세미나와 기도회를 인도했다. 기도세미나에 이어 열린 기도회에서 감사와 임재, 회개와 중보, 선포,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주제로 찬양하고 통성기도를 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을 터치해 주셔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와 기도를 했다.

연합수련회 둘째 날에는 큐티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함께 예배드리고, 수련회 간증을 나눴다. 마지막 순서는 한국의 명절 체험이었다. 간증 시간에 기도세미나와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기도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기쁘다’, ‘침체하는 믿음생활에 새로운 불을 지피게 됐다’, ‘캄보디아에도 이런 수련회가 있으면 좋겠다’,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등의 간증이 있었다. 캄보디아 성도들의 간증이 참으로 귀했다. 이번 연합수련회에 함께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포 캄보디아예배 시나 형제는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는 삶이 기대됩니다. 이번 기도세미나에서

그동안 사탄이 제 기도를 방해하고 빼앗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평안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제 삶에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안산 캄보디아예배 빼으 형제는 곧 캄보디아로 돌아간다. 출국을 앞두고 마음이 뒤숭숭했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다고 했다.

“저는 3월에 캄보디아로 돌아갑니다.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기회가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사를 58장 말씀을 통해서 제게 “너는 물댄동산 같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캄보디아에서도 신앙모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캄보디아예배 소피아 형제는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고향이 떠올랐다고 고백했다.

“제가 살던 마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는 공동체도,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 마을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하 10도를 밀도는 강추위였지만 3년 만에 모여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풍성한 은혜를 만끽했다. 김포, 안산, 남양주에서 신앙 생활하는 캄보디아 형제자매 모두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조병홍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한 아이가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모자’를 그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의 그림을 몰라보지 아이는 더이상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는데 사막에 불시착하고, 거기에서 어린 왕자를 만났다. 어린 왕자는 막무가내로 그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조른다. 그는 양을 그려주고, 어릴 때 그렸던 보아뱀 그림도 보여줬다. 어린 왕자는 단번에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라고 알아봤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둘은 친구가 되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나는 목사라는 직분과 사역으로 여러 사람을 만난다. 여러 고민과 기도제목이 있는 성도의 심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가슴 한쪽에 뿌듯함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도 있지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목양하면서 성도 내면의 소리와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고 만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 생각이 들면서 목양과 돌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히 되다. 목회에서 사역과 심방을 통한 돌봄의 핵심은 성도의 진정한 내면과의 만남이다. 이것이 돌봄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왜 돌봄이 필요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 없이 쓸쓸하고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떤 이는 주변에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고, 집으

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낀다는 성도도 있다. 모든 이들이 ‘돌봄, 돌봄의 관계’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성경에는 돌봄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돌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벤엘과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독대하심을 통한 돌봄, 다윗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여정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내면의 그림)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사람들에게 감추고 있는 내면의 그림을 알아 보셨고, 그를 돌보셨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고,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전하고자 마을로 달려갔다. 유대인들에게 끌려온 간음한 여인에게 잘못 그린 그녀의 그림(죄)을 지워주고, 새로운 캔버스를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돌봄을 하셨다. 그런데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커다란 성공의 모자만 바라봤다.

돌봄의 핵심과 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잘 설명해 준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배신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 내면의 그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돌봄의 핵심이고, 힘이다.

2023년 목회의 큰 주제는 ‘돌봄’이다. 우리 내면의 그림을 정말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예배와 기도, 말씀과 삶의 동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자아에 그려주신 하나님의 뜻(그림)을 깨닫고, 소망과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처럼 가족과 동료, 이웃들의 내면의 참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로서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모자와 보아뱀 그리고 돌봄

|                                                                                                                                                                                                                                                                                                                                                                                                                                                                                                                                                                                                                                                                                                                                                                                                                                                                                                                                                                                                                                                                                                                                                                                                                                                                                                                                                                                                                                                                                                                                                                                                                     |                                                                                                                                                                                                                                                                                                                                                                                                                                                                                                                                                                                                                                                                                                                                                                                                                                                                                                                                                                                                                                                                                                                                                                                                                                                                                                                                                                                                                                                                                                                                                                                                                                                                                                                                                                                                                                                                                                         |                                                                                                                                                                                                                                                                                                                                                                                                                                                                                                                                                                                                                                                                                                                                                                                                                                                                                                                                                                                                                                                                                                                                                                                                                                                                                                                                                                                                                                                                                                                                                                          |                                                                                                                                                                                                                                                                                                                                                                                                                                                                                                                                                                                                                                                                                                                                                                                                                                                                                                                                                                                                                                                                                                                                                                                                                                                                                                                                                                                                                                                                                                                                                                                                                                     |                                                                                                                                                                                                                                                                                                                                                                                                                                                                                                                                                                                                                                                                                                                                                                                                                                                                                                                                                                                                                                                                                                                                                                                                                                                                                                                                                                                                        |
|---------------------------------------------------------------------------------------------------------------------------------------------------------------------------------------------------------------------------------------------------------------------------------------------------------------------------------------------------------------------------------------------------------------------------------------------------------------------------------------------------------------------------------------------------------------------------------------------------------------------------------------------------------------------------------------------------------------------------------------------------------------------------------------------------------------------------------------------------------------------------------------------------------------------------------------------------------------------------------------------------------------------------------------------------------------------------------------------------------------------------------------------------------------------------------------------------------------------------------------------------------------------------------------------------------------------------------------------------------------------------------------------------------------------------------------------------------------------------------------------------------------------------------------------------------------------------------------------------------------------|---------------------------------------------------------------------------------------------------------------------------------------------------------------------------------------------------------------------------------------------------------------------------------------------------------------------------------------------------------------------------------------------------------------------------------------------------------------------------------------------------------------------------------------------------------------------------------------------------------------------------------------------------------------------------------------------------------------------------------------------------------------------------------------------------------------------------------------------------------------------------------------------------------------------------------------------------------------------------------------------------------------------------------------------------------------------------------------------------------------------------------------------------------------------------------------------------------------------------------------------------------------------------------------------------------------------------------------------------------------------------------------------------------------------------------------------------------------------------------------------------------------------------------------------------------------------------------------------------------------------------------------------------------------------------------------------------------------------------------------------------------------------------------------------------------------------------------------------------------------------------------------------------------|--------------------------------------------------------------------------------------------------------------------------------------------------------------------------------------------------------------------------------------------------------------------------------------------------------------------------------------------------------------------------------------------------------------------------------------------------------------------------------------------------------------------------------------------------------------------------------------------------------------------------------------------------------------------------------------------------------------------------------------------------------------------------------------------------------------------------------------------------------------------------------------------------------------------------------------------------------------------------------------------------------------------------------------------------------------------------------------------------------------------------------------------------------------------------------------------------------------------------------------------------------------------------------------------------------------------------------------------------------------------------------------------------------------------------------------------------------------------------------------------------------------------------------------------------------------------------|-------------------------------------------------------------------------------------------------------------------------------------------------------------------------------------------------------------------------------------------------------------------------------------------------------------------------------------------------------------------------------------------------------------------------------------------------------------------------------------------------------------------------------------------------------------------------------------------------------------------------------------------------------------------------------------------------------------------------------------------------------------------------------------------------------------------------------------------------------------------------------------------------------------------------------------------------------------------------------------------------------------------------------------------------------------------------------------------------------------------------------------------------------------------------------------------------------------------------------------------------------------------------------------------------------------------------------------------------------------------------------------------------------------------------------------------------------------------------------------------------------------------------------------------------------------------------------------------------------------------------------------|--------------------------------------------------------------------------------------------------------------------------------------------------------------------------------------------------------------------------------------------------------------------------------------------------------------------------------------------------------------------------------------------------------------------------------------------------------------------------------------------------------------------------------------------------------------------------------------------------------------------------------------------------------------------------------------------------------------------------------------------------------------------------------------------------------------------------------------------------------------------------------------------------------------------------------------------------------------------------------------------------------------------------------------------------------------------------------------------------------------------------------------------------------------------------------------------------------------------------------------------------------------------------------------------------------------------------------------------------------------------------------------------------------|
| <div><div><div>서빙고</div><div>O2. 793. 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div><div>일요주일예배</div><div>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div><div>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div><div>월요 어노인팅집회</div><div>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div><div>화요Holy Impact 집회</div><div>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div><div>수요목양예배</div><div>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div><div>목요경배와찬양</div><div>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div><div>목요열방예배</div><div>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div><div>금요회복예배</div><div>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div><div>금요심야예배</div><div>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div><div>한마음정신회복예배</div><div>담당: 오은규 목사</div><div>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div><div>S브릿지 예배</div><div>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div><div>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div><div>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div><div>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div><div>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div><div>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div><div>아베스삼예배(사별자모임)</div><div>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div><div>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div><div>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div><div>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div><div>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div><div>문의: 전도본부(02-3215-3214)</div><div>사랑부예배</div><div>대상: 발달장애청소년</div><div>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div><div>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div><div>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div><div>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div><div>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div><div>일본어예배</div><div>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div><div>문의: 김상호(010-9349-5631)</div><div>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div></div></div> | <div>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div> <div>영어예배</div> <div>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div> <div>문의: 02-3215-3685</div> <div>중국어예배</div> <div>매 주일 13:40 경찬홀</div> <div>문의: 02-3215-3707</div> <div>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div> <div>서빙고(02-3215-3730)</div> <div>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div> <div>안산M센터(031-491-9650)</div> <div>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매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div> <div>김포M센터(010-5007-3616)</div> <div>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방 11:00 705호</div> <div>화성M센터(070-8671-8091)</div> <div>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div> <div>평택M센터(031-651-1702)</div> <div>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div> <div>남양주M센터(010-3937-3927)</div> <div>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div> <div>DRS 이혼자 정기예배</div> <div>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div> <div>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div> <div>나지원 총무(010-3489-2080)</div> <div>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div> <div>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div> <div>장소: 온라인(Zoom)</div> <div>문의: 서빙고(02-3215-3523)</div> <div>양재(02-570-7553)</div> <div>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div> <div>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div> <div>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div> <div>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div> | <div>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div> <div>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div> <div>장소: 온라인(Zoom)</div> <div>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div> <div>한터공동체 예배</div> <div>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div> <div>일시: 매 주일 오전 10:00</div> <div>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div> <div>문의: 02-3463-9686</div> <div>대청어머니기도모임</div> <div>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div> <div>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div> <div>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div> <div>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div> <div>매주일 오전 11시 30분</div> <div>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div> <div>문의: 010-8964-5275</div> <div>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div> <div>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div> <div>장소: 선교관 101호</div> <div>문의: 군선교팀(02-3215-3214)</div> <div>CMN 서울역노숙인 진료팀 모임</div> <div>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div> <div>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 들 예배당</div> <div>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div> <div>한터공동체 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임</div> <div>일시: 매 주일 오전 9시</div> <div>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div> <div>분야: 피아노 반주자 1명</div> <div>문의: 오은철 간사(010-7107-5270)</div> <div>NGO더멋진세상 채용 공고</div> <div>1. 국내 근무: 해외사업 담당자(1명), 후원 관리 담당자(1명), 재정/회계 담당자(1명)</div> <div>2. 해외 파견: 세네갈 지부 지부장(1명), 르완다 지부 행정 및 회계 담당자(1명), 농업 사업 담당자(1명)</div> <div>3. 말라위 KOICA 프로젝트: 국내 행정 및 회계(1명), 말라위 파견 행정 및 회계(1명)</div> <div>※ 청년 채용: 만 34세 미만(남자의 경우 군필자 2년 가산하여 36세)</div> <div>문의: 정승일 대리(070-4402-5015)</div> <div>*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고</div> <div>강은철 장로반 일대일 양육자 수강생 모집</div> <div>일시: 3월 14일~7월 4일(매주 화 오후 8:30~10:30)</div> <div>강의: Zoom</div> <div>신청: 아이스클</div> <div>문의: 양육교육팀(010-4731-6514), 일대일 간사(02-3215-3266)</div> <div>*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div> | <div><div><div>양재</div><div>O2. 573. 9686</div></div><div><div>토요주일예배</div><div>1부 오전 9:00 사랑홀</div><div>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div><div>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div><div>1부 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div><div>2부 새벽기도회</div><div>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div><div>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div><div>주일 오후 7:00 사랑홀</div><div>수요오전여성예배</div><div>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div><div>수요저녁예배</div><div>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div><div>금요심야예배</div><div>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div><div>브릿지33+ 예배</div><div>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div><div>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div><div>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div><div>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div><div>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div><div>Point5 예배</div><div>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div><div>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div><div>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div><div>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div><div>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div><div>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div><div>도곡 차세대 9:00 예배</div><div>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div><div>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div><div>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div><div>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div><div>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div><div>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div><div>도곡 차세대 11:30 예배</div><div>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div><div>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div><div>도곡 차세대 14:00 예배</div><div>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div><div>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div><div>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div><div>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div><div>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div><div>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div><div>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div><div>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div><div>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div><div>사랑부 예배</div></div></div> | <div>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div> <div>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div> <div>프랑스어 예배</div> <div>설교: Gerard Tynevez</div> <div>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div> <div>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div> <div>스페인어예배</div> <div>설교: 김종균 목사</div> <div>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div> <div>문의: 010-4053-2179</div> <div>하나공동체 예배</div> <div>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div> <div>매 주일 14:00 JDS홀</div> <div>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div> <div>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div> <div>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div> <div>장소: 양재 화평홀</div> <div>문의: 02-570-7277</div> <div>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div> <div>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div> <div>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div> <div>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div> <div>지휘: 최영은 성가사</div> <div>모집: 초 1~중 1</div> <div>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div> <div>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div> <div>문의: 010-9927-4224</div> <div>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div> <div>모집: 치료 외</div> <div>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div> <div>문의: 아백권 팀장(010-3388-5331)</div> <div>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div> <div>일시: 매월 4째주 주일 오후</div> <div>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 지원)</div> <div>분야: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치위생사</div> <div>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div> <div>두란노서원 채용 공고</div> <div>업무: 재정부 세무회계 1명, 안드로이드/프론트엔드 개발자 각 1명</div> <div>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주 35시간)</div> <div>지역: 서울 서빙고동</div> <div>지원: <a href="http://www.duranno.com/recruit">http://www.duranno.com/recruit</a></div> |
|---------------------------------------------------------------------------------------------------------------------------------------------------------------------------------------------------------------------------------------------------------------------------------------------------------------------------------------------------------------------------------------------------------------------------------------------------------------------------------------------------------------------------------------------------------------------------------------------------------------------------------------------------------------------------------------------------------------------------------------------------------------------------------------------------------------------------------------------------------------------------------------------------------------------------------------------------------------------------------------------------------------------------------------------------------------------------------------------------------------------------------------------------------------------------------------------------------------------------------------------------------------------------------------------------------------------------------------------------------------------------------------------------------------------------------------------------------------------------------------------------------------------------------------------------------------------------------------------------------------------|---------------------------------------------------------------------------------------------------------------------------------------------------------------------------------------------------------------------------------------------------------------------------------------------------------------------------------------------------------------------------------------------------------------------------------------------------------------------------------------------------------------------------------------------------------------------------------------------------------------------------------------------------------------------------------------------------------------------------------------------------------------------------------------------------------------------------------------------------------------------------------------------------------------------------------------------------------------------------------------------------------------------------------------------------------------------------------------------------------------------------------------------------------------------------------------------------------------------------------------------------------------------------------------------------------------------------------------------------------------------------------------------------------------------------------------------------------------------------------------------------------------------------------------------------------------------------------------------------------------------------------------------------------------------------------------------------------------------------------------------------------------------------------------------------------------------------------------------------------------------------------------------------------|--------------------------------------------------------------------------------------------------------------------------------------------------------------------------------------------------------------------------------------------------------------------------------------------------------------------------------------------------------------------------------------------------------------------------------------------------------------------------------------------------------------------------------------------------------------------------------------------------------------------------------------------------------------------------------------------------------------------------------------------------------------------------------------------------------------------------------------------------------------------------------------------------------------------------------------------------------------------------------------------------------------------------------------------------------------------------------------------------------------------------------------------------------------------------------------------------------------------------------------------------------------------------------------------------------------------------------------------------------------------------------------------------------------------------------------------------------------------------------------------------------------------------------------------------------------------------|-------------------------------------------------------------------------------------------------------------------------------------------------------------------------------------------------------------------------------------------------------------------------------------------------------------------------------------------------------------------------------------------------------------------------------------------------------------------------------------------------------------------------------------------------------------------------------------------------------------------------------------------------------------------------------------------------------------------------------------------------------------------------------------------------------------------------------------------------------------------------------------------------------------------------------------------------------------------------------------------------------------------------------------------------------------------------------------------------------------------------------------------------------------------------------------------------------------------------------------------------------------------------------------------------------------------------------------------------------------------------------------------------------------------------------------------------------------------------------------------------------------------------------------------------------------------------------------------------------------------------------------|--------------------------------------------------------------------------------------------------------------------------------------------------------------------------------------------------------------------------------------------------------------------------------------------------------------------------------------------------------------------------------------------------------------------------------------------------------------------------------------------------------------------------------------------------------------------------------------------------------------------------------------------------------------------------------------------------------------------------------------------------------------------------------------------------------------------------------------------------------------------------------------------------------------------------------------------------------------------------------------------------------------------------------------------------------------------------------------------------------------------------------------------------------------------------------------------------------------------------------------------------------------------------------------------------------------------------------------------------------------------------------------------------------|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중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중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중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중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중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 565. 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 651. 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 437.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 475. 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지

O31. 331. 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김보론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 http://www.onnuri.org                                                                                                                                                                                                                                                                                                                                                                                                                                                                                                                                                                                                                                                                                                                                                                                                                                                                                                                                                                                                                                                                                                                                                                                                                                                                                                                                                                                                                                                                                                                                                                              |  |  |  |
|----------------------------------------------------------------------------------------------------------------------------------------------------------------------------------------------------------------------------------------------------------------------------------------------------------------------------------------------------------------------------------------------------------------------------------------------------------------------------------------------------------------------------------------------------------------------------------------------------------------------------------------------------------------------------------------------------------------------------------------------------------------------------------------------------------------------------------------------------------------------------------------------------------------------------------------------------------------------------------------------------------------------------------------------------------------------------------------------------------------------------------------------------------------------------------------------------------------------------------------------------------------------------------------------------------------------------------------------------------------------------------------------------------------------------------------------------------------------------------------------------------------------------------------------------------------------------------------------------|--|--|--|
| <p><b>국내 온누리교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서빙고</b><br/><b>박종길 목사</b> (02) 793-9686(대표)<br/>0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li> <li><b>양재</b><br/><b>강부호 목사</b> (02) 573-9686(대표)<br/>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br/>햇불선교센터</li> <li><b>부천</b><br/><b>정재욱 목사</b> (032) 322-9686<br/>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li> <li><b>수원</b><br/><b>김승훈 목사</b> (031) 895-6500<br/>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li> <li><b>대전</b><br/><b>김상수 목사</b> (042) 825-3642-4<br/>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li> <li><b>남양주</b><br/><b>이기복 목사</b> (031) 565-9686-8(대표)<br/>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li> <li><b>평택</b><br/><b>신동석 목사</b> (031) 651-9680(대표)<br/>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li> <li><b>인천</b><br/><b>김승수 목사</b> (032) 437-9686(대표)<br/>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li> <li><b>강동</b><br/><b>이준호 목사</b> (02) 475-9686<br/>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li> </ul>                                                                                                                                                                                                                                                                                                                                                                                                                                                                                                                                                                                                                                                                                                              |  |  |  |
| <p><b>해외 온누리교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미서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앨버틴</b><br/><b>박신웅 목사</b> 1-949-261-9100<br/>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li> <li><b>로스앤젤레스</b><br/><b>이정엽 목사</b> 1-213-382-5658<br/>743 South Grand View st.</li> </ul> </li> </ul>                                                                                                                                                                                                                                                                                                                                                                                                                                                                                                                                                                                                                                                                                                                                                                                                                                                                                                                                                                                                                                                                                                                                                                                                                                                                                 |  |  |  |
| <p><b>미동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보스턴</b><br/><b>김철진 목사</b><br/>1-781-933-7044<br/>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li> <li><b>시카고</b><br/><b>이중재 목사</b> 1-630-753-9191<br/>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li> <li><b>뉴욕IN2</b><br/><b>심상현 목사</b> 1-212-427-2055<br/>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li> <li><b>뉴저지</b><br/><b>Marc Choi 목사</b> 1-201-461-4010<br/>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li> <li><b>미북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포틀랜드</b><br/><b>이성권 목사</b> 1-503-628-2000<br/>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li> </ul> </li> </ul>                                                                                                                                                                                                                                                                                                                                                                                                                                                                                                                                                                                                                                                                                                                                                                                                                                                                                                                                                     |  |  |  |
| <p><b>앵커리지</b><br/><b>서재범 목사</b> 1-907-569-9191<br/>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p> <p><b>밴쿠버</b><br/><b>박태영 목사</b> 1-604-888-0082<br/>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br/>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p> <p><b>오세아니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시드니</b><br/><b>전현규 목사</b>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li> <li><b>오를랜드</b><br/><b>유현목 목사</b>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li> <li><b>홍콩</b><br/><b>송재욱 목사</b>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li> <li><b>일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동경</b><br/><b>후쿠자와 마키토 목사</b>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li> <li><b>오사카</b><br/><b>이성진 목사</b>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li> </ul> </li> </ul> <p><b>우에다</b><br/><b>하카마타 미키 목사</b>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p> <p><b>요코하마</b><br/><b>니시아마 신이치 목사</b>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p> <p><b>아치요</b><br/><b>요시하라 마나부 목사</b>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p> <p><b>나고야</b><br/><b>정호석 목사</b>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p> <p><b>교토</b><br/><b>권영환 목사</b> 81-75-748-98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amp;2F),ukyo-ku, Kyoto-si</p> |  |  |  |
| <p><b>중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아부다비</b><br/><b>김도균 목사</b>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li> </ul> <p><b>동남아시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베트남</b><br/><b>이길탁 목사</b>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li> </ul>                                                                                                                                                                                                                                                                                                                                                                                                                                                                                                                                                                                                                                                                                                                                                                                                                                                                                                                                                                                                                                                                                                                                                                                                                          |  |  |  |

## 섬기는 분들

### ◆담당목사

### ◆캠퍼스 담당목사

### ◆부목사(전임)

### ◆부목사(파트)

### ◆전도사(파트)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담당목사

◆부목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전임)

◆목사(준전임)

◆경배와찬양 목회자

김광동

◆담당목사

◆부목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전임)

◆목사(준전임)

◆경배와찬양 목회자

홍종철

◆담당목사

◆부목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전임)

◆목사(준전임)

◆경배와찬양 목회자

이영복

◆담당목사

◆부목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전임)

◆목사(준전임)

◆경배와찬양 목회자

◆반주자

◆담당목사

◆부목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전임)

◆목사(준전임)

◆경배와찬양 목회자

◆전도사

◆담당목사

◆부목사(파트)

◆전도사(파트)

◆전도사(전임)

◆목사(준전임)

◆경배와찬양 목회자

## 결혼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박현규, 최순이(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박두홍(포도교회)

김태환, 김영애(온누리교회)의 딸

김강은(포도교회)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김기중, 김현정(포구제일교회 집사, 집사) 아들

김승호(온누리교회)

최해기, 김숙현의 딸 최예은(온누리교회)

##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당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원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 재정

십일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기미습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소천

2/3(금) 분당B 이주용 성도 빙모상 고 이한옥

2/3(금) 서초A 김용기 장로 빙부상 고 최원식

2/3(금) 서초A 김선옥 성도 부친상 고 김계창

2/3(금) 강남B 이용성 집사 빙부상 고 안효일

2/5(주일) 고양은평 김민석 성도 부친상 고 김암태

2/5(주일) 동대문중앙 최명수 성도, 김발실 성도 자녀상

고 최예민

2/6(월) 서대문 나병선 집사 모친상, 정혜숙 권사 시모상

고 김영애

2/7(화) 과천의왕 서정옥 성도 모친상 고 안광순

2/8(수) 강남B 공만식 집사 부친상 고 공수용

2/8(수) 노원 천영미 권사 모친상 고 정수자

2/8(수) 이촌 이혜수 집사 모친상, 락노곤 집사 빙모상

고 장순정

2/9(목) TIM 김동훈 선교사 모친상 고 문희동

이가연PD의 하이퍼출장리즘

## 어디든 가연

시청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30일 태국 선교!  
노크 이가연 PD의 선교 브이로그



태국 선교사님 사역 밀착취재와 현지인 크리스천 간증, 거리 전도까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어디든 가연> 시즌3를 만나보세요!



KNOCK 노크

검색